



〈마돈나를 춤추게 한 허브릿츠〉사진전시회

인물에 아름다움을 입히는 사진가를 회고하다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유명하지 않은 인물에 존재감을 부여한 사진을 사랑한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사랑한 사진작가, 허브릿츠(Herb Ritts, 1952~2002)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마돈나를 춤추게 한 허브릿츠」 전시는 ‘할리우드’, ‘패션’, ‘누드’ 섹션으로 구성되며 허브릿츠가 찍은 사진 100여 점과 뮤직비디오, 잡지 등을 선보인다. 국내 최초로 열리는 이 전시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층에서 5월 2일까지 열린다.

사진으로 할리우드 스타를 만들다

1976년 사진 찍기를 시작한 허브릿츠는 1978년 당시 신인배우였던 친구 리차드 기어와의 여행 중 우연히 들른 사막의 한 유주소에서 그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다. 리차드 기어의 남성미 넘치면서도 자연스러운 이 사진은 〈보그〉, 〈에스콰이어〉, 〈마드모아젤〉 등 당대 최고 잡지들에 실린다. 이때 허브릿츠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허브릿츠는 사진가로서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는 매트콜린스와 화보를 찍고 영

화배우 잭 니콜슨, 영국의 아티스트 데이비드 호크니 등을 촬영하고 마돈나, 브리트니 스피어스 뮤직비디오를 찍는 등 패션, 음악과 영상 등에서 두각을 보였다.

허브릿츠는 작업을 할 때 작품 주제 하나하나를 깊이 연구한 후 보다 섬세하면서도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허브릿츠는 인물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잘 포착해냈다. 마이클 조던에게선 영웅적인 농구선수의 모습을 뽑아냈다. 배경과의 극적인 대비를 이용한 허브릿츠는 역광과 낮은 앵글로 조던의 옆모습과 긴 다리, 허리를 강조했다. 그는 웅장한 유리블록 앞에 세워진 조던에게서 영웅적이고 당당한 면모를 끌어냈다.

마돈나에게서는 그녀만의 관능적인 분위기를 찾아낸 허브릿츠는 마돈나를 1980년대 세계 스타로 만드는데 일조했다. 1980년대 팝의 여왕 자리를 두고 마돈나는 신디 로퍼와 치열한 라이벌전을 벌였다. 승패는 결정적으로 허브릿츠가 찍은 마돈나의 앨범 커버 사진에서 갈렸다. 허브릿츠는 기존의 마돈나가 내세웠던 ‘섹시미’가 아닌 음울한

백조와 같은 모습으로 그녀를 표현했고 대중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1980년 당시 〈보그〉 1면은 마돈나로 장식됐고 그녀의 앨범은 신디 로퍼의 3배를 훌쩍 넘는 판매수익을 냈다. 마돈나는 1980년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며 팝의 여왕 자리를 차지했다.

성별과 인종, 외모의 선입견을 깨다

허브릿츠는 어렸을 때부터 여성보다 남성에게 매력을 더 느꼈다. 가족에게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쉽사리 인정받지 못했던 그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며 소수자들을 위한 예술적 투쟁을 했다. 허브릿츠는 사진이 대중에게 사회의 정치적, 미학적 혹은 사회적 관점을 결정할 만큼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여성배우인 미셸 페이퍼의 남장사진, 남성 두명의 누드를 찍은 ‘DUO’ 등의 사진은 허브릿츠가 인종, 외모, 성별 등 대중들이 가진 선입견을 부수고자 했음을 말해준다. 그는 그래피티 예술가이자 동성애자였던 키스 해링과 함께

작품을 하고 동성애를 주제로 많은 작품을 다룬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를 자신의 사진 모델로 다루기도 했다.

흑인 모델 나오미 캠벨은 허브릿츠가 발굴했다. 흑인 모델이 일반적이지 않던 시절 사람들은 나오미의 누드 사진을 반기지 않았다. 나오미 캠벨의 〈손으로 받친 얼굴〉 작품은 흑백대비가 너무 분명하던 이유로 패션 잡지 〈보그〉에서 거절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허브릿츠는 사진 톤을 변경해서 다시 밀어붙였고, 이후 나오미 캠벨은 흑인 여성 최초로 〈타임〉, 〈보그〉 등의 표지를 장식했다. 피부색이나 성별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고자 한 허브릿츠의 사진관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

상업에 예술을 끌어오다

사진가로서 뛰어난 능력을 갖췄던 허브릿츠는 1980년대 상업에 예술화시킨 예술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패션에서는 〈보그〉, 〈타임지〉, 〈롤링스톤〉 등과 같은 유명 잡지 커버에 그가 찍은 작품 상당수가 실렸다.

그는 크리스티 텸링턴, 나오미 캠벨 등과 같은 당대 유명한 슈퍼모델들과 패션 작업을 함께 했고, 그들 각각의 개성과 자연스러움을 사진 속에 담아내려 했다. 사진에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허브릿츠는 인공조명을 최대한 배제하고 햇빛과 모래, 물 등 자연 소재를 패션과 결합해 작업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허브릿츠는 여러 패션 브랜드를 ‘명품’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입던 검은 터틀넥의 브랜드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캘빈클라인(Calvin Klein), 갭(GAP), 샤넬(CHANEL) 등은 모두 허브릿츠를 거쳤다. 그는 관능적이면서 화려한 의상을 선보이는 베르사체 의류 브랜드 광고캠페인 작품을 맡기도 했다. 허브릿츠는 바람과 땅, 햇빛을 이용해 사람의 몸을 아름답고 감각적으로 표현해냈다. 황량한 마른 호수에서 수호자와 같은 자세로 서 있는 모델 크리스티에서 그의 빛과 자연

을 이용하는 감수성을 느낄 수 있다.

누드사진의 세계를 창조하다

1980년대 허브릿츠는 누드를 외설이 아닌 아름다움이 극대화된 예술로 승격시키며 누드사진에 혁신을 불러왔다. 그는 매끈한 피부와 조각 같은 인체를 사진에 담아내며 육체의 질감과 생동감을 정밀하게 나타냈다. 과거와 현재, 여성과 남성의 모호한 경계를 둔 그의 누드사진들은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다각도에서 인체를 분석하고 작품 구성에 강약을 주며 추상적인 누드의 세계를 창조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허브릿츠의 누드사진은 고대 그리스 신화와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한 것이 많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과거의 문화를 현 시대의 방식으로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하거나 자신의 고유한 스타일을 입혀 세련되게 표현해냈다. 질감에 집중했던 그는 물, 모래 알갱이 혹은 천의 베일과 함께 배치해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래서 그의 누드 사진에는 우아함과 생동감이 느껴진다.

여성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허브릿츠에게 여성모델들은 신뢰와 믿음을 표했다. 이는 〈스테파니, 신디, 크리스티, 타티아나, 나오미〉에서도 드러난다. 다섯 명의 모델은 허브릿츠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거리낌 없이 옷을 벗었다. 그들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전 세계를 매료시켰다. 이 한 장의 사진은 다섯 명의 모델을 1990년대를 대표하는 모델로 만들었다. 인물사진에서 허브릿츠의 즉흥적인 매력이 드러났다면, 누드사진에서는 자연광과 남녀를 구분짓지 않는 중성적 매력이 확연히 도드라졌다.

글 | 백승주 기자 100win@kukye.com

사진 | 강수환 기자 swan@

사진제공 | Herb Ritts Foundations



Madonna(〈True Blue〉앨범 재킷 사진) 1986



Versace Dress Back View(베르사체) 1990



Duo(듀오) 1990

빛과 교감에 의해 달라지는 인물사진

같은 사람의 다른 얼굴들.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피사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구도로 어떻게 빛을 비추는지에 따라 한 사람은 카멜레온처럼 다른 사람이 됐다. 고대신문은 정경대 후문 ‘스튜디오 짱’에서 한 인물의 여러 모습을 사진 속에 담아내 보았다.

조명은 인물사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손꼽힌다. 스튜디오짱 박후규 작가는 “조명은 사진을 찍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며 “조명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사진은 천차만별의 분위기를 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증명사진으로 주로 쓰이는 순광은 얼굴에 환

한 느낌을 내지만 평평함이 부각된다. 민트 스튜디오 이제성 작가는 “조명은 방향을 다양하게 조절하여 피사체의 얼굴에서 비대칭과 같은 단점을 보완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빛을 이용해 음영이나 입체감을 넣으면서 일종의 메이크업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조명의 세기 역시 사진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다. 빛의 세기에 따라 조명은 크게 소프트 조명과 하드 조명이 있다. 하드 조명은 강렬하지만 딱딱한 인상을, 소프트 조명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효과를 낸다. 박후규 작가는 “인물사진을 찍는 데는 부드러운 느낌을 내는 소프트 조명을 주로 쓴다”고 말했다.

피사체와의 소통과 교감도 인물사진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역할을 한다. 피사체에 대해 잘 알수록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내기 쉽다. 또, 피사체가 편안함을 느낄수록 사진 속 피사체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기 쉽다. 이제성 작가는 “사람은 정지돼있는 물건과는 달라서 대상의 그 날의 몸 상태나 기분에 따라 인물사진 결과물의 느낌도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사진교육 1세대인 육명심 작가는 피사체와 소통하고 교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자연스러움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못하면 피사체에 대한



조명을 비추는 위치에 따라 얼굴 각이 달라진다. 피사체의 아래턱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 오른쪽에서 조명을 비췄다. 빛에 따라 사진의 입체감과 분위기가 달라졌다.



중요한 부분, 진실적인 모습을 잡아낼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육 작가는 “사진은 혼자서 찍는 것이 아니기에 먼저 찍는 자와 찍

히는 자가 만나 심리적인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글 | 백승주 기자 100win@

사진제공 | 스튜디오짱